



남해 관광 추진조직육성 3년 연속 선정...'남해 모어' 서비스

송고시간 | 2023-02-28 10:21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3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 관련 기업·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지역 관광 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로 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재단은 이번 사업으로 남해 여행 정보 등이 담긴 '남해 모어(more)' 서비스를 운영한다.

남해 여행과 관련한 혜택, 상품 등 관광 정보를 구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남해 more 온라인 홈페이지는 이르면 7월부터 운영된다.

재단 관계자는 "3년 연속 선정된 것은 남해가 전국 DMO 사업을 선도하고 지역 관광을 견인하는 싱크탱크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은 지난해 588만명이 다녀간 국내 인기 관광지다.

독일마을, 보리암, 상주 은모래비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28 10:21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